____월 ____일

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은 뒤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 그리고 외워 보세요.

토머스 칼라일

출처: 조선일보 2017년 5월 2일

삶은 두 개의 영원 사이 희미한 반짝임.
우리에게 영원히 두 번째의 기회는 없으리.

클로드 레비스트로스, 『우리는 모두 식인종이다』

출처: arte

멀리 떨어진 것이 가까운 것을 밝혀주지만 가까운 것도 멀리 떨어진 것을 밝혀줄 수 있다.

최재천, 『다르면 다를수록』

출처: arte

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모두 제가끔 늘 갈등과 타협의 삶을 산다.
갈등이 빚은 불균형들이 끝내 타협을 얻어내지 못하면 모두 함께 침몰한다.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